

“노조파괴 범죄자 기경도 조양·한을 시장 구속하라”

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파업 100일 ... “불법, 파렴치한 철저히 사회 격리해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조양·한을기공이 노동조합 탄압, 파업시간 대체인력 투입 등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경도 조양·한을기공 대표이사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8월 9일 오전 대구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노조탄압 범죄자 조양·한을기공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2일 파업에 돌입한 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는 이날 파업 100일을 맞았다.

박용선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기경도 사장 참 질긴 사람이다” 라면서 “조양한울 투쟁 100일이다. 새로운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더 강한 투쟁으로 본때를 보여주자” 라고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를 높였다.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조양·한을 사측이 지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라며 “특히 기경도 대표이사는 노동부가 위법을 지적하고 시정지시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증언했다.

손기백 분회장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기경도는 금품으로 조합원을 회유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등 노조파괴에 혈안이다” 라면서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이 지난 7월 27일 기경도를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라고 알렸다.

손덕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에 기경도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기경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조양한울분회를 고립하려 한다” 라고 분노했다.

노조 대구지부는 “기경도는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안하무인에, 불

법이 몸에 밴 파렴치한이다” 라며 “조양·한을의 기경도 같은 사용자는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구지부는 “검찰은 조양·한을 기경도 대표이사의 구속기소로 범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라면

서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경도를 처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조양·한을기공은 농기계 핵심부품인 유압기어펌프를 제조해 대동 등에 공급하는 부품업체다. 조양한울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2023년 조양·한을 사측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부당해고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협박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5월 2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5월 3일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사측 교섭 반복, 부당노동행위, 인격 말살,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석 달째 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포스코, 노동부 무기력·무책임으로 키운 산재 괴물”

포스코 직업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산재 처리 기한 대폭 단축해야”

금속노조가 직업암으로 사망한 포스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로 일관하는 포스코와 노동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8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직업암·직업성 질병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1일 포스코 선재공장에서 32년 동안 정비작업을 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김태학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의 장례를 사망 13일 만에 치렀다.

고인은 2021년 10월 8일 직업성 폐암 산재신청 21개월 만인 2023년 7월 5일 산재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병세 악화로 7월 20일 숨졌다.

고인과 함께 2021년 10월 8일 직업암 집단 산재신청을 한 다른 두 노동자는 아직도 산재승인 결과를 받지 못했으며, 한 명은 2023년 6월 29일 숨졌다.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가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직업암, 직업성 질병 재발 방지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포스코가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라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직업성 암 등 산재 예방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손덕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수많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하지만, 포스코는

작업 현장 개선 조치는커녕 사과 한마디 않고 있다” 라고 분노했다.

손덕헌 노조 부위원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왜 회사 때문에 아프고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포스코는 노동자가 죽지 않는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자겸 금속노조 포스코 광주전남 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에서 직업암 발생으로 산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노동자가 30명이 넘는다” 라면서 “포스코와 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포스코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 라고 지적했다.

구자겸 지회장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는 2021년 청문회 당시 안전관리경영으로 산업안전보건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라며 “현재까지 포스코 현장



이은주 의원은 “산인기업 포스코·노동자 죽음 방관하는 노동부 규탄! 포스코 직업암 및 직업성질병 재발방지 대책촉구 긴급 기자회견”

은 아무 변화가 없고, 직업암·직업성 질병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의원은 “포스코는 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무기력과 무책임으로 키운 괴물이다” 라면서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 단축·역학조사 결과공개·원청 책임자 철저히 조사·처벌하라” 라고 촉구했다.

이강산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포스코는 김태학 조합원의 직접 고용주이자 실제 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폐암 사망 노동자에 공개 사과 ▲포스코 직업암·직업성 질병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동삼권 보장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 중대재해방지 활동 적극 보장 ▲포스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조사,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등 근본 안전대책 집행 ▲포스코 역학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신속한 산재 처리 대책 마련을 포스코와 노동부에 요구했다.